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일 시: 2017년 3월 28일(화) 13:30 ~ 17:30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신세계관(후문쪽)

주 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 서울대 SSK고령사회연구단

개회사 서이종 사무총장 (서울대 교수)	
축사 손봉호 공동대표 (샘물호스피스 이사장) 임현진 명예교수 (경실련 전 공동대표) 윤평중 공동대표 (한신대 철학)	13:30 ~ 14:00
주제발표	14:00 ~ 15:10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시행방안의 문제점 : 최경석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시행방안의 문제점 : 서이종 사무총장(서울대 사회학)	
국제적인 규약의 관점에서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시행방안의 문제점 : 한수연 교수(남서울대 사회복지학)	
쉬는 시간	15:10 ~ 15:20
대토론회	15:20 ~ 17:30
사회자 : 박상은 위원장 (샘병원 대표원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 최윤선 교수 (고려대 의대,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유상호 교수 (한양대 의대, 의료윤리학회) 이명아 교수 (가톨릭대 의대, 서울성모병원) 이용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서울성모병원) 송미옥 간호사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장) 능 행 스님 (자재병원 원장, 불교호스피스협회 회장) 가 혁 원장 (은혜병원 진료원장, 한국요양병원협회 학술이사) 최경애 사회복지사 (한림대 병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윤득형 목사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무던히도 다사다난하였던 2016년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완연한 봄기운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도 우리 국민 모두의 존엄하고 아름다운 마무리의 근간이 될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방안의 마련 등 많은 준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저희 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시행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저희 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는 2015년 4월 결성되어 여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 그리고 여론주도층을 결집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주도적 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동법률이 2016년 1월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2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공포된 이후에는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차 대토론회에 서는 동법의 쟁점과 향후과제를 논의하여 동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제2차 대토론회에서는 호스피스 영적 케어 표준교육안 마련을 논의하였으며 제3차 대토론회에서는 호스피스 영화제를 겸하여 대국민 홍보방안을 논의하여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불과 4개월여밖에 남지 않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시행을 앞두고 또 10개월여밖에 남 지 않는 연명의료 결정의 법적 시행을 앞두고, 여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그리고 관심있는 일반시민 들을 모시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 법의 시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러 보완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통령 탄핵과 선거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만, 고령사회와 이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삶의 질 못지않게 죽음 의 질 결정의 기본 인프라가 될 동법의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는 그 어느 국정과제보다도 시급한 바, 대토론회에 참여하셔서 귀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대화와 토론에도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2017년 3월 18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 공동대표 일동